

2009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2학년 국어과 (과목코드 : 01)

실시일: 4월 28일 1교시

객관식: 25문항 × 2점 = 50점
서술형: 9문항 = 50점

만점 100점

<서술형 문제는 반드시 서술형 답안지에 답을 작성하여
OMR 카드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객관식 1~2, 서술형 1)

(가) 문학 작품에서는 “한 마리의 노랑나비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왜 하필이면 노랑나비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콩쥐가 사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 흥부의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이런 빈 부분을 스스로 채워 넣어 가며 읽어야 한다.

(나)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부지런히 일한 개미는 겨울이 와도 따뜻하고 풍족하게 살지만, 놀기만 했던 베짖이는 겨울이 오면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미와 베짖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런 정도의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문학 작품 읽기에서의 ‘기본 내용의 파악’이다.

(다) 이 이야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곤충에 대한 이야기로 ‘돌려 말하고’ 있으며, 부지런한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는 어른일 수도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일 수도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개미와 베짖이’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교훈적인 의미를 읽어 낼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문학 작품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이다.

(라) 가령, “베짖이한테는 노래 부르는 것이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열심히 노래 부르는 가수들을 보고 놀기만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의문을 가져 볼 수도 있다. 또, “베짖이는 어차피 날씨가 추워지면 죽을 목숨이므로 겨울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베짖이로서는 더운 여름날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중략) 여기서 예로 든 내용들은 작품 내용에 대한 비판적 측면의 감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 내용을 넘어서서 색다른 상상도 해 볼 수 있다. 가령, “이 이야기를 ‘꿀벌과 나비’ 이야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사슴과 사자로 이야기를 만든다면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 등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상상해 볼 수 있다. 또, “‘개미와 베짖이’를 연극으로 꾸민다면 베짖이가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 하며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1. (가)~(마)와 같은 글을 읽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② 핵심어, 중요 구절 등을 찾으며 읽는다.
- ③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며 읽는다.
- ④ 여러 가지 내용 전개 방식을 이해하며 읽는다.
- ⑤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며 읽는다.

2. (가)글에 설명된 문학 작품의 특성은?

- ① 돌려 말하기 ② 비유하기 ③ 생략
- ④ 상상 ⑤ 비판하기

<서술형> <보기>는 ‘홍길동전’을 읽고 난 후의 종합
생 감상문이다. 감상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
오. (총8점)

<보 기>

홍길동은 어떤 인물일까? 보통, 사람들은 홍길동을 의로운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홍길동이 나중에는 자기의 이익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홍길동은 환빈당을 조직하여 힘없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부정을 일삼는 양반들을 혼내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지 못했다. 그는 힘없는 백성들을 그냥 두고 조선을 떠나 울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워 왕이 되었다. 홍길동이 정말 정의의 사도였다면, 조선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백성들의 편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았어야 했다. 그런데 힘없는 백성들을 끝까지 도와주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떠났으므로 홍길동은 정의의 사도라고 말할 수 없다.

(1) <보기>의 감상문과 관련된 문학작품 감상방법을
글(가)~(마)에서 찾아 알맞은 문단 기호를 쓰시
오. (2점)(2) 나머지 3가지 방법을 쓰고(3점), ‘홍길동전’을
가지고 각각의 감상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
시오. (3점)

문학작품의 감상방법	구체적 내용
㉠	㉠
㉡	㉡
㉢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객관식 3~5, 서술형 2)

(가)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 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 때 그 사람이
그 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병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후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아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나) 베란다 벤자민 화분 부근에서 며칠 저녁 울던 귀뚜라미가
어제는 뒤꼍 다용도실에서 울었다,
다소 힘없이.
무엇이 그를 그 곳으로 이사 가게 했을까,
가을은 점차 쓸쓸히 깊어 가는데.
기어서 거실을 통과했을까,
아니면 날아서?
아무도 없는 낮 시간에 그가 열린 베란다 문턱을 넘어
천천히 걸어 거실을 건넌으리라 상상해 본다.

우선 텔레비전 앞에서 망설였을 것이다.
저녁마다 집 안에 사는 생물과 가구의 얼굴에
한참씩 이상한 빛 던지던 기계.
한번 날아올라 예민한 촉각으로
매끄러운 브라운관 표면을 만져 보려 했을 것이다.
아 눈이 어두워졌다!
손 헛질고 떨어지듯 착륙하여
깔개 위에서 귀뚜라미 잠을 한숨 잤을 것이다.
그리곤 어슬렁어슬렁 걸어 부엌으로 들어가
바닥에 흘린 찻물 마른 자리 훑아 보고
뒤돌아보며 고개 두어 번 끄덕이고
문턱을 넘어
다용도실로 들어섰을 것이다,
아파트의 가장 외진 공간으로…….

……오늘은 그의 소리가 없다.

3. (가)시에 드러난 문학의 특성 중 둘러말하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 (가)시에 사용된 표현방법이 아닌 것은?

- ① 반복법 ② 의인법 ③ 영탄법
④ 직유법 ⑤ 생략법

5. (나)시에서 시인이 상상한 귀뚜라미의 행동이 아닌 것은?

- ① 깔개 위에서 낮잠을 잤다.
②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울었다.
③ 텔레비전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④ 매끄러운 브라운관 표면을 만지려다 떨어졌다.
⑤ 부엌에서 바닥에 흘린 찻물 마른 자리를 훑었다.

<서술형> (가)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4점)

(1) 시적 화자의 주된 정서를 2음절로 쓰시오. (1점)

(2) ‘꽃봉오리’의 시적 의미와 관련하여 이 시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3점)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객관식 6~7, 서술형3)

(가) 목요일, 심신 장애인 시설에서 자원 봉사자로 일하는 날은 몸이 젖은 솜처럼 무겁고 피곤하다. 그래도 뇌성마비나 선천적 기능 장애로 사지가 뒤틀리고 정신마저 온전치 못한 아이들을 씻기고 함께 놀이를 하고 휠체어를 밀어 산책을 시키는 등 시중을 돌다 보면, 나를 요구하는 곳에서 시간과 힘을 내어 일한다는 뿌듯함이 있다.

(나) 고등 학생인 두 아들은 아침에 도시락을 두 개씩 싸 들고 갔으니 밤 11시나 되어야 올 것이고, 남편은 3박 4일의 출장중이니 날이 저물어도 서두를 일이 없다. 아이들은 머리가 커져 치마폭에 감기거나 귀찮게 치대는 일이 없어 “다녀왔습니다.” 한 마디로 문 닫고 세 방에 들어앉게 마련이지만, 가족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거실이나 방에 혼자 있어도 혼자 있다는 기분을 갖기 어려웠다. 사방 문 열린 방에서 두 손 모아 쥐

고 전전궁궁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다) 거실 탁자의 갖등을 켜고 커피를 진하게 끓여 마시며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를 틀었다. 첼로의 감미로운 선율이 흐르고, 나는 어슬푸레하고 아득한 공간, 먼 옛날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에 잠겨들었다.

(라) 일주일을 참다가 나는 인터폰을 들었다. 인터폰으로 직접 위층을 부르거나 면대하지 않고 경비원을 통해 이쪽 의사를 전달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은 나로서는 자신의 품위와 상대방에 대한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나는 자주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소음 공해와 공동 생활의 수칙에 대해 주의를 줄 것을 선의의 피해자들을 대변해서 말하곤 했었다.

(마) “아래층인데요, 맥이 그런 식으로 말할 건 없잖아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공동 주택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잖아요? 난 그 소리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에요.” “여보세요. 난 날아다니는 나비나 파리가 아니에요. 내 집에서 맘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나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틀거리로 전화를 해대시니 저도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저더러 어찌라는 거예요?”

(바) 화가 날수록 침착하고 부드럽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은 나이가 가라친 지혜였다. 지난 겨울 선물로 받은, 아직 쓰지 않은 ⑦실내용 슬리퍼에 생각이 미친 것은 스스로도 신통했다. 선물도 무기가 되는 법. 발소리를 죽이는 폭신한 슬리퍼를 선물함으로써 소리를 죽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리 때문에 고통 받는 내 심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 사려 깊고 양식 있는 이웃으로서 공동 생활의 규범에 대해 조곤조곤 타이르리라.

6. 이 글을 문학작품 감상 방법에 따라 감상했을 때 ‘깊고 넓은 이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나’는 위층의 소음에 화를 내다가 위층 여자가 장애인임을 알고 부끄러워한다.
② 글쓴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③ ‘위층 여자’가 아랫집을 배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태도가 아닌가?
④ 아파트에서도 이웃 간에 잘 지내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⑤ 만일 ‘나’가 교양 없는 여자였다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7. (바)의 밑줄 친 ⑦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 선물을 통한 경고와 항의
㉡ ‘나’의 교양이 드러나는 소재
㉢ 이웃 간의 단절을 상징하는 소재
㉣ ‘나’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소재
㉤ 극적반전과 갈등의 해소의 계기가 되는 소재

- ① ㉠,㉡,㉢ ② ㉠,㉢,㉤ ③ ㉠,㉡,㉤
④ ㉡,㉢,㉤ ⑤ ㉢,㉣,㉤

<서술형3> (가)~(다)글에서 (1) ‘나’에 대한 묘사를 찾아 3가지를 찾아 쓰고, (2) 이를 통해 상상할 수 있는 ‘나’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쓰시오. (총7점)

(1) ‘나’에 대한 묘사 내용 (3점)

(2) ‘나’의 이미지 (4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객관식8~10)

(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이유는 물론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말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이유가 그것만일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

서, 어떤 사람은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친구와의 즐거운 만남을 위해서 산에 오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글을 읽는 이유도 꽤나 다양할 수 있다. 교양(敎養)을 쌓거나 인격(人格)을 수양하기 위해서 글을 읽는 사람도 있겠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혹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글을 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 글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 내용의 이해이다. 여기서 글 내용은 글 속에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담아 놓은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한다. 그러므로 글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글쓴이가 글에 담아 놓은 생각과 느낌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해는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서 훨씬 더 깊고 넓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까지 포함한다. 가령, 글 속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더욱 깊고 넓게 추리하는 것이나, 글 내용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 모두 글 이해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글의 내용에서 자극을 받아 그 내용을 더욱 창의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글 이해라 할 수 있다.

(다) 실차는 간단하다. 먼저 항목들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두세 묶음으로 나눈다. 양이 적다면 한 번에 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 번에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하는 것이 낫다. 이 점은 일평 보기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으나, 일이 복잡하게 되면 곧 그 이유를 알게 된다. 한 번의 실수로 대가를 크게 치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 첫째로,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글쓴이의 생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글 속에 담긴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글쓴이의 글쓰기 의도나 목적도 파악해야 한다.

(마)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글읽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상의 경험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배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는 글은 뱃사람에게는 쉽게 이해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구 중계를 잘 이해하지만 야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또, 요리를 즐겨 하는 이들은 요리에 관한 글을 잘 이해하지만, 요리에 관심이 없거나 요리를 해 보지 않은 이들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예들은 모두 배경 지식이 글 내용 이해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바) 글읽기는 글쓴이와 읽는이의 정신적 만남이다. 이 만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읽는이는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글읽기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지피지기(知彼知己)이며, 더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는 정신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8. 글 (라)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글읽기의 의의 ② 이해란 무엇인가
- ③ 배경지식의 중요성 ④ 읽기의 방법
- ⑤ 글을 읽는 이유

9. 글 (다)와 가장 관계 깊은 문단은?

- ① (가) ② (나) ③ (라) ④ (마) ⑤ (바)

10. (바)의 줄친 지피지기(知彼知己)에서 '피(彼)'가 의미하는 것은?

- ① 배경지식 ② 정신적 만남
- ③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 ④ 읽기의 전략
- ⑤ 읽는이의 생각과 느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객관식11~13 서술형4)

(가) 동물들의 의사 소통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크게 네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간은 특히 시각과 청각에 의존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냄새를 맡거나 몸을 더듬으며 상대를 확인하기보다는 모습을 보고 서로를 알아본다. 또, 서로의 표정을 읽으며 눈치를 보기도 하고, 글을 읽고 상대방의 뜻을 살피기도 한다.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인간은 말로써 대부분의 의사를 전달한다. 이처럼 인간 사회는 눈과 귀와 입으로 유지되는 사회이다.

(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의사 소통을 할 때에 전혀 후각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인간도 알게 모르게 후각에 많은 것을 의존한다. 그렇지 않다면 향수 회사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후각 이용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이다. 이에 비하여 절대 다수의 동물들은 후각을 의사 소통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동네 개들은 길에서 마주치면 서로 냄새를 맡으며 상대의 신분(身分)을 확인한다. 말로 자기 소개를 하거나 명함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확인하는 우리들과는 매우 다르다.

(다) 개미가 냄새길을 그럴 때에 사용하는 화학 물질은 일종의 페로몬(pheromone)이다. 개미의 페로몬은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 이는 개미의 몸 속에 수많은 페로몬을 생산하는 크고 작은 온갖 화학 공장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미는 마치 걸어다니는 페로몬 공단과도 같다.

냄새길을 그럴 때 사용하는 페로몬은 대개 배끝에 있는 외분비샘에서 만들어진다. 정확히 어느 분비샘에서 만들어진 페로몬으로 냄새길을 그리는지 찾아 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가능성이 있는 몇몇 분비샘들을 따로 해부한 후, 각 분비샘에서 나온 페로몬들로 각각 다른 방향의 냄새길을 그려 본다. 그리고 개미들에게 먹이를 찾아가게 해 보면 어느 분비샘의 페로몬을 따라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때로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개미가 그 페로몬을 합성(合成)할 때에 둘 이상의 외분비샘에서 생성된 물질들을 섞어 각테일을 만들기 때문이다.

(라) 개미가 사용하는 화학 언어는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음성 언어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다. 일꾼 개미의 냄새길 페로몬은 독침샘에서 분비되며, 화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화학 물질은 매우 민감하여 1mg만으로도 지구를 세 바퀴 반이나 둘 만큼 긴 냄새길을 만들 수 있다. 또, 냄새길 페로몬은 휘발성이 매우 강한데, 그 또한 경제적이다. 먹이를 다 거둬들이고 난 후에도 오랫동안 냄새길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많은 일개미들이 아직도 먹이가 남아 있는 줄 알고 헛걸음질을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먹이를 물고 돌아오는 개미들이 이미 회비해지기 시작한 냄새길 위에 페로몬을 더 뿌려 길의 모습을 유지한다. 그러다가 맨 나중에 먹이가 없어 빈 입으로 돌아오는 개미는 더 이상 페로몬을 뿌리지 않아 냄새길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린다.

(마) 아프리카, 동남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의 열대림에는 베짜기개미가 서식한다. 베짜기개미들은 여럿

이 힘을 합해 한 나뭇가지에 달려 있는 여러 잎들을 끌어당긴 뒤, 애벌레들이 분비하는 명주실을 사용하여 바느질하듯 잎들을 엮어 집을 만든다. 이처럼 미성년자들까지 동원한 조직적인 협동 사회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고도로 발달한 화학 언어이다. 개미들은 터의 경계, 먹이 장소, 침입자의 위치 등을 불과 몇 가지의 간단한 화학 낱말들을 가지고 전달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더 복잡한 내용의 문구를 만들기도 한다. 페로몬을 사용하는 이와 같은 개미의 의사 소통도 우리 인간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던 언어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춘 하나의 엄연한 의사 소통 수단이다.

(바) 몸 접촉을 통한 의사 소통은 한 번에 오직 한 마리만 상대하는 의사 소통이다. 이런 의사 소통 방법은 상당히 원시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원시적 의사 소통에서 점차 페로몬으로 냄새길을 만드는 대중적 의사 소통으로,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소리의 이용으로까지 개미의 의사 소통은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이들의 의사 소통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는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1.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개미의 화학언어는 경제적이어서, 한 번 뿌려놓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 ② 개미가 협동사회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화학언어이다.
- ③ 냄새길을 그리는 페로몬은 대개 배 끝에 있는 독침샘에서 만들어진다.
- ④ 인간의 의사소통은 주로 후각에 의존하며, 청각은 보조적으로 쓰인다.
- ⑤ 개미의 의사소통은 인간의 의사소통과는 달리 언어적인 기본구조를 갖추지 못한 비효율적인 언어다.

12. 각 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① (가) 글은 주로 동물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② (나)는 '비유'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나)와 (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설명방법은 '대조'다.
- ④ (다)의 줄친 낱말의 원관념은 '페로몬 분비샘'이다.
- ⑤ (마)에는 예시와 비유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13. 이와 같은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 말한 것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지엽: 아는 내용,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더 알고 싶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며 읽었다.
- ② 승헌: 글에 설명된 정보를 파악하고, 중요한 정보에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다.
- ③ 미연: 글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을 글 옆에 메모하면서 읽었다.
- ④ 병헌: 글의 내용을 연결망으로 구조화하면서 읽었다.
- ⑤ 경구: 글 속에 담긴 가치와 감동을 음미하면서 읽었다.

<서술형 4> 위의 글을 읽고, 개미의 의사소통발전과정을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4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객관식14~15, 서술형5)

(가) “선생님, 제 성격을 좀 바꿀 순 없을까요? 전 이것만 해결되면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언을 해 주었다. “천만에! 자네 아직도 갈 길이 멀어. 그 성격 변하는 날 자네 발전도 끝날 것일세! 좀더 그대로 지녀야 하네.” 그는 무슨 말인지 영 알아들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생각해 봐. 자네는 영리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노력이 있어야 하네. 문제는 그 노력이야. 무엇이 자네에게 그토록 노력하게 만들었나? 그건 자네의 그 성격 때문이야. 자네는 여러 사람 앞에 나서질 못해. 말도 잘 못 하지. 자네 말처럼 내성적이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네는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자네 좋은 대학에도 합격했고, 교수 요원으로서까지 추천을 받지 않았나 말일세. 떨리는 만큼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이지. 그게 자네를 오늘 이 시점까지 밀어 올린 거야. 자네의 그 성격은 자네에게 원수가 아니라 은인일세.”

(나) “그 보물당이 내향성을 바꾸다니, 천만의 말씀! 지금은 좀 귀찮고 불편하지만 그게 자네를 키워 주는 밑거름일세. 발표 때 정 떨리거든 떨린다고 솔직히 털어놓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소심해서…….”라고 하면서 뒤통수를 긁어 봐. 장내에는 가벼운 웃음이 일겠지. 그런 자네를 교수는 이해하고 애교스럽게 봐 주실지언정 미워하진 않으실 걸세. 교수는 알아. 공부도 안 한 학생이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지, 실력은 있는데도 말주변이 없어 더듬대는 것인지를……. 교수님이 어느 학생을 더 신임하고 좋아할 것 같은가?”

(다) 내향적(內向的)인 사람은 자신이 없다. 어딘가 모자란 듯싶은 자기 부족감에 고민하고 있다. 적극성도 없고 매사에 용기도 없으니, 해 보기도 전에 패배감부터 든다. 이들이 열등감에 잘 빠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 버리는 이들도 없진 않다. 그러나 내향적인 사람 모두가 좌절의 늪에 가라앉는 것은 아니다. 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은 자기의 성격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 그것밖에 이들에게 주어진 무기는 없기 때문이다. 노력형, 근검형이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난 셈이다.

(라) 외향적(外向的)인 사람은 화려하다. 갖춘 것도 많고 인기도 좋다. 어딜 가나 사람들로 부터 귀여움도 받고 인정도 받는다. 여기저기 불러 다닌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아니 그 이상 발휘할 수 있으니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예뻐해 준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외부로부터 채워지니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스스로 채워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노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마) 외향적인 사람은 화려하고, 확실히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많다.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내향적인 사람이 더 열심히,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다면, 수십 년이 지난 먼 훗날 두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어느 쪽의 삶이 더 풍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축복(祝福)받은 성격은 어느 쪽일까? 당신의 대답이 궁금하다.

14.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이 글 속의 '나'는 글쓴이 자신이다.
- ② 내향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의 장단점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③ 일화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사실감을 더하고 있다.
- ④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⑤ 글쓴이는 화려하고 자신감 많은 외향적인 성격을 축복받은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5. 다음 중 의미가 나머지 표현과 다른 것은?

- ① 은인 ② 밑거름 ③ 보물덩이
④ 자기 부족감 ⑤ 축복받은 성격

<서술형5> 여러분은 ‘축복받은 성격’ 이 결국 ①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②이유를 들어 서술 하시오.(총5점)

① 나의 생각(2점):

② 이유(3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객관식 16~18,서술형6)

(가) 백제 제 30대 무왕의 이름은 장(璋)이다.

무왕의 어머니는 과부였는데, 서울 남쪽 연못가에 집을 짓고 홀로 살던 중에 그 못의 용과 정을 통하여 장을 낳았다. 무왕의 어릴 적 이름은 서동(薯童) 또는 맛둥이였는데, 항상 마를 캐다 팔아 생활했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이다. 서동은 재능이 뛰어나고, 도량이 넓고 깊어 헤아리기 어려웠다.

(나)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화(善化)가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왔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를 나누어 주니, 아이들은 호감을 가지고 그를 따랐다.

(다)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시집 가 두고

맛둥 [薯童]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으러 간다네.

동요는 거리에서 거리로, 마을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번져 드디어 대궐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자 백관(百官)들이 동요의 내용을 사실로 믿고, 선화 공주의 옳지 못한 행실을 탄핵하여 공주를 먼 시골로 귀양 보내도록 했다. 공주가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갈 때 왕후는 노자로 황금 한 말을 주었다.

(라) 두 사람은 함께 백제로 돌아갔다. 선화 공주는 왕후인 어머니가 준 황금을 꺼내어 놓고 앞으로 살아갈 일을 의논하려 하는데, 서동이 큰 소리로 웃으며 물었다.

“이게 무슨 물건이요?”

“이것은 황금입니다. 이 황금만 있으면 평생 동안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공주의 말을 듣고 서동은 말했다.

“내가 어려서부터 마를 캐던 곳에는 이런 것이 흩쳐럼 쌓여 있소.”

(마) 지명법사는神通력을 써서 하룻밤 사이에 황금과 공주의 편지를 신라의 궁중에 옮겨다 놓았다. 진평왕은 그 신비스러운 변화를 이상히 여기고 서동을 존경했으며, 항상 글을 띄워 서동의 안부를 물었다. 이 때문에 서동은 인심을 얻었고, 왕위에 올랐다.

16. (다)에 인용된 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균여전에 실려 전한다.
②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진다.
③ 한문으로 표기되어 전한다.
④ 국문학사상 최초의 자유시다.
⑤ 이 시가의 시적 대상은 서동이다.

17. 이 글에는 영웅설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영웅적인 모습이 나타난 글을 바르게 고른 것은?

- ① (가),(나) ② (나),(다) ③ (다),(라)
④ (라),(마) ⑤ (가),(마)

18.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회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
② 신분질서를 뛰어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
③ 신라와 백제를 오가는 일이 쉽지 않았다.
④ 황금이 매우 흔하여 가치가 없었다.
⑤ 여성의 정절을 중시했다.

<서술형6> (다)에 삽입된 노래에서 서동이 선화공주를 모함하는 2가지 내용을 쓰시오.(4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객관식19~20,서술형7)

(가) 어떤 사람이 내게 말했다.

“어제 저녁,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개를 때려죽이는 것을 보았네. 그 모습이 불쌍해 마음이 너무 아팠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생각이네.”

(나) 그 말을 듣고 내가 말했다.

“어제 저녁, 어떤 사람이 화로 옆에서 이 [虱]를 잡아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척 아팠네. 그래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였네.”

(다) 그러자 그 사람은 화를 내며 말했다.

“이는 하찮은 존재가 아닌가? 나는 큰 동물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말한 것인데, 그대는 어찌 그런 사소한 것이 죽는 것과 비교하는가? 그대는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인가?”

(라)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무릇 살아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곤충,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는 것을 원하고 죽는 것을 싫어한다네. 어찌 큰 것만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것은 싫어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이겠지. 그래서 이를 들어 말한 것이지, 어찌 그대를 놀리려는 뜻이 있었겠는가?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그대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게나.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 손가락은 안 아프겠는가? 우리 몸에 있는 것은 크고 작은 마디를 막론하고 그 아픔은 모두 같은 것일세. 더구나 개나 이나 각기 생명을 받아 태어났는데, 어찌 하나는 죽음을 싫어하고 하나는 좋아하겠는가? 그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게.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소의 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큰 봉새와 동일하게 보도록 노력하게나. 그런 뒤에야 내가 그대와 더불어 도(道)를 말할 수 있을 절세.”

19. 이와 같은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를 말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미있는 작품을 골라서 읽는다.
② 우리 조상들의 사상과 소망을 파악하며 읽는다.
③ 조상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
④ 당대 조상들의 가치관과 정서를 파악하며 읽는다.
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나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다.

20.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설득적인 내용이 많다.
② 설의 갈래로 고전 수필에 속한다.
③ 구진되어 작자가 알려져 있지 않다.
④ 대화를 통해 극적 성격을 제시한다.
⑤ 비유나 우의의 표현 방법을 많이 쓴다.

<서술형7> (라)글을 통해 글쓴이가 독자 및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쓰시오.(3점)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객관식 21~25)

21. 다음 보기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은?

-----<보기>-----

꽃집 아주머니: 하늬 왔구나. 꽃 사려고?
하늬 : 네, 하늬꽃 주세요.
꽃집 아주머니: 뭐라고? 무슨 꽃?
하늬 : 저기 분홍 꽃잎에 꽃술이 하얀 꽃 있잖아요?
꽃집 아주머니: 저게 무궁화지, 왜 하늬꽃이니?
하늬 : 무궁화라는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하늬꽃이라고 바꿨는데요.
꽃집 아주머니 : 그래? 나는 몰랐네. 이거 어찌지? 어제 주희는 무궁화를 바람꽃이라고 바꿨는데 주희에게도 알려줘야 하나? 그나저나 이렇게 이름이 자주 바뀌니 장사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구나.

- ① 의미성 ② 창조성 ③ 법칙성
④ 사회성 ⑤ 역사성

22. 다음 중 언어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어의 예가 아닌 것은?

- ① 꽃나물 ② 자동차 ③ 지달
④ 즈른 ⑤ 지갑

23. 다음 중 혀끝이 윗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는 자음은?

- ① ㄱ ② ㄴ ③ ㄹ ④ ㅇ ⑤ ㅎ

2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이다.
②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음절이다.
③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에는 흐름소리가 많이 사용되어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 난다.
④ ‘ㄹ, ㄴ, ㅁ, ㄷ’은 센입천장과 혀바닥에서 소리 난다.
⑤ 자음은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로 나뉘는데, 자음 가운데 ‘ㄴ, ㄹ, ㄹ, ㅇ’이 안울림소리이다.

25. 다음 중 크고 거친 느낌을 주는 단어는?

- ① 감감하다 ② 덜그럭덜그럭 ③ 뽕웅
④ 캄캄하다 ⑤ 부웅

<서술형 8> 다음 글들의 종류와 쓴 목적,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의 유의사항을 표에 써 넣으시오.(8점)

(가) 우리 나라에는 책벌레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 성인 남녀 월평균 독서량 0.8권!
이런저런 핑계로 책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우리 나라는 어느새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책은 시간 날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읽는 것! 다시 책벌레로 돌아갑시다.

(나) 한국 청소년, ‘아시아 골초 금메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폐암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의 폐암 사망률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9배이다. 16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

우기 시작하면 폐암 사망률이 무려 27배나 된다고 한다. 청소년의 흡연이 가져오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그런데 세계 금연 총회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고교생)들의 흡연율은 남자 27.6%, 여자 10.7%로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다. 담배를 많이 피우기로 유명한 중국 고교생(남자 23%, 여자 5%)보다도 한 수 위이다. 청소년 금연 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솔선수범이다. 가정의 달 5월에 자녀 건강을 다시 한 번 생각함 직하다.

(다) 꽃 그림이 그려진 동화책 속을 달리는 것 같은 경원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소요산역에 내리면, 동두천의 명산인 소요산과 아주 잘 어울리는 조그만 소요산역이 그림처럼 앉아 있다. 그 그림 속을 걸어 역 안으로 들어서면 쌉싸래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침차 향기가 우리의 발걸음을 잡는다. (-중략-) 그 때부터 겨울에는 따뜻한 침차를, 여름에는 시원한 소요산 생수를 준비하여 승객들 목을 축이게 했다고 한다. 평소엔 하루 500여 잔이 나가지만, 주말이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소요산 단풍 축제 때에는 1000잔 이상 나간다고 한다. 그럴 때에는 두 딸까지 가세해서 차를 끓여 낸다며 역장 부부는 유쾌하게 웃는다. “차 대접 이후 소요산을 찾는 분들이 더 늘었어요. 작년 가을 이후엔 열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종이 컵이나 설탕 등을 들고 오시는데, 그 종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재료비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예요. 아깝긴요. 제 수입의 10분의 1을 승객을 위해 쓰기로 작정한걸요. 사실, 다 집사람 공이에요. 집사람이 아니면 정말 엄두를 못 낼 일이지요.” 하며 역장인 남편이 정색을 한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렇게 자꾸 알려지면 부담스럽잖아요? 어이구!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래, 수입의 10분의 1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뜻 쓰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경원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소요산역에 내려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침차 한 잔 마시자. 그리곤 “역장님, 사모님, 정말 잘 마셨어요. 참 맛있네요. 고마워요. 건강하시기를 빌어요.”라고 인사하며 진한 마음을 담아 손이나 흔들어 주자. 물론 종이 컵이나 설탕 등을 전해 주어도 좋겠다.

글	글의 종류	글을 쓴 목적	읽을 때의 유의사항
(가)			
(나)	기사문		
(다)			

<서술형 9> 단모음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다음 ()안에 알맞은 말을 쓰고, 그 예를 쓰시오.(7점)

- (1) 입술 모양에 따라
()모음: _____
()모음: _____
(2)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모음: _____
()모음: _____
(3) 혀의 높이에 따라
()모음: _____
()모음: _____
()모음: _____

<서술형6> 객관식 16~18에서

(다)에 삽입된 노래에서 서동이 선화공주를 모함하는 2가지 내용을 쓰시오. (4점)

- 1) _____
- 2) _____

<서술형7> 객관식 19~20에서

(라)글을 통해 글쓴이가 독자 및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쓰시오. (3점)

답 : _____

<서술형 8> 다음 글들의 종류와 쓴 목적,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의 유의사항을 표에 써 넣으시오. (8점)

(가) 우리 나라에는 책벌레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 성인 남녀 월평균 독서량 0.8권! 이런저런 핑계로 책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우리 나라는 어느새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책은 시간 날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읽는 것! 다시 책벌레로 돌아갑시다.

(나) 한국 청소년, '아시아 골초 금메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폐암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의 폐암 사망률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9배이다. 16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폐암 사망률이 무려 27배나 된다고 한다. 청소년의 흡연이 가져오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그런데 세계 금연 총회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고교생)들의 흡연율은 남자 27.6%, 여자 10.7%로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다. 담배를 많이 피우기로 유명한 중국 고교생(남자 23%, 여자 5%)보다도 한 수 위이다. 청소년 금연 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솔선수범이다. 가정의 달 5월에 자녀 건강을 다시 한 번 생각함 직하다.

(다) 꽃 그림이 그려진 동화책 속을 달리는 것 같은 경원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소요산역에 내리면, 동두천의 명산인 소요산과 아주 잘 어울리는 조그만 소요산역이 그림처럼 앉아 있다. 그 그림 속을 걸어 역안으로 들어서면 씩씩해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췌차 향기가 우리의 발걸음을 잡는다. -중략-

그 때부터 겨울에는 따뜻한 췌차를, 여름에는 시원한 소요산 생수를 준비하여 승객들 목을 축이게 했다고 한다. 평소엔 하루 500여 잔이 나가지만, 주말이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소요산 단풍 축제 때에는 1000잔 이상 나간다고 한다. 이럴 때에는 두 딸까지 가세해서 차를 끓여 낸다며 역장 부부는 유쾌하게 웃는다. "차 대접 이후 소요산을 찾는 분들이 더 늘었어요. 작년 가을 이후엔 열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들이 종이 컵이나 설탕 등을 들고 오시는데, 그 정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재료비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예요. 아깝긴요. 제 수입의 10분의 1을 승객을 위해 쓰기로 작정한걸요. 사실, 다 집사람 공이에요. 집사람이 아니면 정말 엄두를 못 낼 일이지요." 하며 역장인 남편이 정색을 한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렇게 자꾸 알려지면 부담스럽잖아요? 어이구!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래, 수입의 10분의 1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뜻 쓰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경원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소요산역에 내려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췌차 한 잔 마시자. 그리곤 "역장님, 사모님, 정말 잘 마셨어요. 참 맛있네요. 고마워요. 건강하시기를 빌어요."라고 인사하며 진한 마음을 담아 손이나 흔들어 주자. 물론 종이 컵이나 설탕 등을 전해 주어도 좋겠다.

글	글의 종류	글을 쓴 목적	읽을 때의 유의사항
(가)			
(나)	기사문		
(다)			

<서술형 9> 단모음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다음 ()안에 알맞은 말을 쓰고, 그 예를 쓰시오. (7점)

(1) 입술 모양에 따라

()모음: _____

()모음: _____

(2)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모음: _____

()모음: _____

(3) 혀의 높이에 따라

()모음: _____

()모음: _____

()모음: _____

-끝-

()학년 ()반 ()번 이름 () 점수: